



제목	Wine of Reunio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7. 10. 1.
저자	Rumi Nesreen Akhtarkhavari, Anthony A. Lee(번역자)
출판도시	East Lansing
페이지수	120
ISBN 또는 ISSN	978-1611862638

### 내용 요약

『재결합의 포도주』은 『삼스-이 타브리즈』에 수록되어 있는 루미의 아랍어 시를 영어로 옮긴 최초의 책인데, 루미의 페르시아어 시만큼 직접적이고, 강렬하며, 에로틱하다. 이 책의 저자 안소니 리는 루미의 시를 소개하기 전에 수피즘과 광범위한 수피 운동 등을 이론적으로 정리한다. 이어 아랍어 시가 먼저 나오고 영어 번역이 다음 페이지에 따라 나오는데, 목차에 나오는 제목이 시의 본래 제목은 아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루미 시의 번역자인 안소니 리는 루미의 아랍어 작품을 다섯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을 주제별로 체계화한다. 최초 그룹은 「You are beautiful」이라는 제목 하에 아홉 편의 시가 들어있는데, 말하자면 삼스에게 바치는 시이다. 두 번째 그룹의 제목은 「사랑의 고통」이고, 「사랑의 비밀」, 「사랑과 고통」 등을 포함해서 10편의 시가 들어있다. 세 번째 그룹의 제목은 이 책의 제목과 같다. 「재결합의 포도주」에 「신성한 포도주」, 「내 잔을 채워라」 등 5편의 시가 세 번째 그룹에 속한다. 「빌어먹을 인간들」이 네 번째 그룹의 제목이다. 죄와 최후의 심판 관련 시를 포함해서 5편의 시가 들어있다. 마지막 그룹의 제목은 「승리」이고 「신성한 빛」, 「열정」, 「슬픔의 끝」 등 10편의 시가 이 그룹에 속한다.

번역자의 의도대로 루미의 아랍어 시들이, 이 시를 처음으로 접하는 독자들에게 영적인 탐험과 열광적인 합일, 보편적인 구원과 신비한 화해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을 루미가 열어 밝히는 황홀한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면, 독자들은 예외 없이 루미가 초대한 잔치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잔칫집에서 루미를 만날 수 있으며, 루미의 환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욕망과 갈망, 에로틱한 의미, 그리고 황홀한 잔치를 함께 즐길 수 있다.